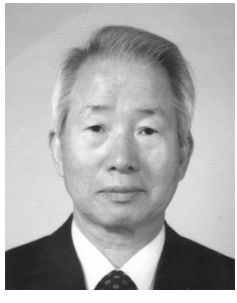


발정이 온 소를 집중적으로 알려주는 소가 있다



임경순 · 농학박사
서울대 명예교수

발정이 온 소를 발견하는 지침 가운데 하나는 발정이 온 소를 발정이 오지 않은 소가 올라타는 징후이다. 발정이 오지 않은 소가 발정이 온 소를 올라타는 이유는 페르몬을 들 수 있다.

발정이 온 소는 음부에서 페르몬이 나오는데 이 페르몬은 어떤 특이한 물질로서 공중에 확산되어 동료를 자극하여 증가행위를 유발한다. 번식우를 개방우사에서 여러 마리를 같이 사육할 때 한 암소가 발정이 오면 발정이 오지 않은 모든 동료소가 발정이 온 소를 올라타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몇 마리만 관심을 가지고 올라타는 것을 볼 수 있다.

경우에 따라서는 특히 두 마리가 집중적으로 올라타고 태우는 것을 볼 수 있다. 이런 때는 이 두 마리 중에 어느 것이 발정이 왔는지를 구분하기 어렵다. 이런 때는 증가하는 현상 외에 다른 지침을 참고해야만 발정이 온 소를 가려낼 수 있다.

두 소 중 어느 소가 재발예정에 있는 소인지, 어느 소가 인공수정하여 60일 이상 발정이 오

지 않은 임신한 소인지, 외음부가 부어 있는지 또는 외음부에 점액이 보이는 소인지를 분별하여 발정이 온 소를 가려낸다. 그리고 한 소를 여러 마리가 올라타면 여러 마리를 올라 태운 소가 발정이 온 소다.

왜 발정한 소를 몇 마리만이 특히 어떤 개체들만이 집중적으로 올라타는지를 설명할 수 없으나 페르몬을 인지하는 수용체의 기능이 개체에 따라 그리고 생리시기에 따라 다르지 않느냐 생각된다.

발정이 온 소가 발정이 오지 않은 소를 올라타는 성욕의 표시와 발정이 오지 않은 소가 발정이 온 소를 올라타는 페르몬의 자극현상은 발정이 온 소를 부각시켜 번식효율을 높이려는 본능적 생리현상이며 신비한 자연의 섭리이다. 이 자연의 섭리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은 번식우를 기르는 양축가의 지혜의 영역에 속한다. 발정이 온 소를 쉽게 그리고 정확히 반드시 찾아내려면 번식우는 한 우방에 3~4두를 같이 기르는 것보다 개방우사에서 10두 이상 같이 기르는 것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.

